

李대통령 “내년 예산, 대한민국 도약 디딤돌 돼야”

금리 상승 고통 최소화 재정 역할 분담 필요

희망 만들 수 있도록 여야 예산안 협력 기대

생활물가 불안, 촘촘한 지원방안 수립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제 질서의 격변 속에 내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을 초격차 선도국가로 도약시키는 든든한 디딤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금리 상승은 피할 수가 없다. 금리 상승에 따른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이 정교한 역할 분담에 나서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저성장 고착화나, 잠재성장을 반등이나의 갈림길 앞에 서 있다.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이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전략이 꼭 필요하다”며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 모두에게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것이라는 희망을 만드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정부가 이를 적극 존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된 것과 관련해서는 “민의를 전담인 국회가 정부와 주권자의 유용한 도구가 돼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실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여야 모두 작은 차이를 넘어 초당적으로 상생과 타협의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향해서도 “정부의 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또 완벽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국회의 지적과 대안을 대승적으로 검토하고 합당한 지적과 제안이 있다면 입법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해달라”고 전했다.

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가 관리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폭발적 수출 증가로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3%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하고 있지만, 주요 지표의 양호한 흐름과 달리 민생 현상이 여전히 어렵다”며 “무엇보다 생활 물가가 불안하다. 최근 육류와 채소 같은 밥상 물가가 많이 올라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은 상당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올해는 예년보다 추석이 빨리 온다. 이상기후로 농작물과 가축 피해가 큰 상황에서 이른 추석이 겹치면서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 불안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며 “선제적이고 촘촘한 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을 향해 물가 대응에 자신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 차관이 “확실하게 잡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실패하면) 재경부 장관 지명을 취소할 수도 있는데 진화 확실하냐”고 웃으며 재차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좀 과한 농담이지만, 그만큼 물가 문제는 우리 국민에게 너무나 체감이 되는 사안”이라며 총력을 다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 당정협의회가 1일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려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과 안도걸 전남광주특별시장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제공>

민주 특별시장-특별시, 첫 당정협의회 개최

안도걸 “긴밀한 협조가 새로운 100년 관건”

민형배 “당이 길 열고, 시가 실행하는 구조”

분기별 개최...4개 권역별 이슈 적극 발굴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일 오전 7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안도걸 위원장 선출 이후 첫 당정협의회를 갖고 통합특별시의 핵심 현안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통합특별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경제 대도약을 이루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제”라며 “당정이 얼마나 긴밀하게 움직이느냐가 전남광주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논의할 4대 핵심 과제로 ▲경제 대도약을 위한 재정 확보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지원 및 무안공항 재개항 ▲군공항 이전 ▲국립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100명

확보를 제시했다.

그는 “4년간 20조원의 통합 지원금을 특별시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 예산 확보와 핵심 사업 추진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공항 이전과 국립의대 신설은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축”이라며 “당정 협의체를 상시 문제 해결 플랫폼으로 운영해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장은 “당이 길을 열고 특별시가 실행하는 구조가 확실히 자리 잡아야 한다”며 “취임 두 달 동안 군공항 이전 후보지 확정, 국립의대 후보 대학 추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등 주요 현안이 하나둘 방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 특별시장은 특히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해 “남은 절차를 빈틈없이 챙기고, 목표를 중심으로 서부권 의료 인프라 확충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조원 통합 지원금 정부안이 구체화되는 대로 즉시 필요한 부분을 챙기겠다”며 “국

회와 당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전남광주 앞에 큰 기회가 와 있다”며 “청년이 고향에서 일하고 시민이 더 넉넉하게 사는 지역을 의원님들과 함께 반드시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회의에 참석한 강문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원내대표)은 “민형배 시장이 밤낮없이 뛰는 모습을 보며 통합특별시의 변화가 시작됐을을 느낀다”며 “특별시의회의도 모든 역량을 모아 지역 발전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반도체로 인해 전남광주가 희망과 계 획의 땅이 된 것 같다”며 “여수화학산업, 제철 산단 등 전통 산업과의 연계 발전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안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백리피를 통해 “앞으로 당정 협의는 최소한 분기별 한 번은 개최할 생각”이라며 “또한 동부, 서부, 중부, 광주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해당 국회의원들과 해당 시·군·구 지자체장, 기초의회 의장단이 참석하는 정책협의회를 열어 권역별 이슈들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진수 기자

“백운산 남부학술림 관리 주체 확정해야”

권향엽, 국회 예결특위서 교육부장관에 질의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은 1일 2025 회계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분야 질의를 통해 “광양시 백운산 남부학술림에 대한 명확한 관리 주체가 없어 지역사회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 서울대는 법인화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에 국유재산 중 3개 학술림(남부, 칠보산, 태화산)과 관악수목원에 대한 무상양여를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는 교육·연구 목적으로의 활용 여부 및 위 등에 대해 일부 논란이 있어 서울대 법인 설립 후 추가 검토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를 근거로 2012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대의 남부학술림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사용을 허가하며 양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대에 한시

적인관리를 위탁하게 됐고 그 뒤로 14년이 지났다.

한편 남부학술림은 1988년 7월 이후 농림부 소관에서 현재 교육부의 전신인 문교부 소관의 국유림으로 관리 주체가 변경됐다. 하지만 현재 서울대는 당시의 원대부계약서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권향엽 의원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지금의 서울대학교도 아닌 일제 강점기 시대 동경제국대학 시절에 사용했고, 그 뒤로 대한민국 정부도 아닌 미 군정청이 관리했다는 내용이 전부인 남부학술림의 국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는 그 시작부터 잘못됐다”며 “기존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유재산 관리 주체가 속한 서울대학교 법을 개정해서라도 지방정부의 의견이 반영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진수 기자

민주당TV 첫 방송…金 “새 소식은 우리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취임과 동시에 당의 홍보를 강화하고자 출범을 지시했던 유튜브 채널 ‘민주당TV’가 1일 첫선을 보였다.

기존에 당의 주요 회의 등을 중계하던 ‘텔레민주’가 이날부터 ‘민주당TV’로 간판을 바꾼 것이다.

김 대표는 박영식 앵커의 진행으로 오전 7시부터 방송된 ‘민티07’의 첫 게스트로 나왔다.

김 대표는 “좋은 방송이 많이 있지만 (거기서 나오는) 여러 해설이 헷갈릴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의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새로운 소식은 저희에서 시작하는 게 맞다는 생각에서

(민주당TV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날그날 또는 그 시점에 민주당의 기조가 무엇인지를 염선에 최소한 하나씩은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 방송이 기초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방송에서 당의 방향과 관련한 특별 기구 10개를 뜻하는 ‘메가 텐’을 설명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연합뉴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 알로에